

일주문



파라미타 지도자 직무연수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센터에서 초·중등학교 특수 분야 지도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강원불교련 신년하례법회
강원불교연합회 회장 정병 스님(명창 월정사 주지)은 1월 9일 속초 신홍사 설법전에서 불기 2551년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부처님 성도절 기념초청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지각 스님은 1월 23일 오후 5시 30분 광주 KT 대강당에서 사단법인출범 및 성도절 기념 자라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중앙승가대 불교학과에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본각 스님은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승가대 총장 증범 스님으로부터 불교학과장 겸 신문사 주간 임명장을 받았다.



노숙인 방한복 나누기
보현의집 원장 지거 스님은 1월 4일 영등포 로터리 근처에서 유인촌 前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과 함께 동절기 노숙인 방한복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박물관협회 신년교례회
한국박물관협회 배기동 회장은 1월 15일 오후 4시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2007년 한국박물관협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제1차 정기이사회
대한불교청년회 박효상 회장은 1월 27일 오후 7시 30분 만해교육원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한다. (02)738-1920



조계종 원우회 제13대 회장에
조계종 교육원 류창무 연수팀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무원조합 원우회 제13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인사

태고종 총부총무원 △총무원장=원해 △부원장=광해 △사정원장=운공 △총무국장=상명 △교무국장=강철 △기획국장=도운 ·혜성 △규정국장=혜명 △포교국장=덕공 △문화국장=혜철 △사업국장=지광 △교임국장=월성 스님

이전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오피스텔 1014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8-5586, FAX 738-7576

북한돕기·이해하기 지속 전개

(사)참여불교운동본부 제2대 이사장 정여 스님



“북한의 힘들고 어려운 동포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한민족, 한핏줄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부산 여여선원에서 사단법인 참여불교운동본부 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여 스님(사진)은 북한을 돕는 것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비의 일일집행 행사를 열고 북한 동포들을 위한 부산 신탄진원은 불교계가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했던 통일선발 보내기를 이어가게 되며 연간 1

없다”고 전제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해결해주기 위한 생필품, 식량 지원은 불교계가 반드시 해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꾸준히 진행했던 통일선발 보내기를 이어가게 되며 연간 1

만달러의 신발이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 교류도 지속된다. 남북 어린이 그림 교류전은 지역순회 전시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한 스님은 “얼마전 인도에 갔을 때, 영취산을 오르는데 장애인들이 즐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부처님의 나라 인도를 불교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북한 뿐 아니라 인도, 미얀마 등에도 학교를 세워 학용품, 생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참여불교운동본부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스님은 “불자들의 참여가 그 역량을 키우는 열쇠”라며 “사업을 일리는 소책자 발간, 회원 배가 운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교사 이전·후원확대에 초점”

동방불교대 신임 학장 자월 스님



“중단의 미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훌륭한 인적자원 확보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중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중단 부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동방불교대학이 종합대학으로서 위상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태고종 제 92차 중앙총회에서 동방불교대학 신임 학장으로 인준 받은 부원장 자월 스님(사진)은 “올해부터 동방불교대학은 ‘선교육 후득도’ 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학생 수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돼 1학기중에 교사를 확보해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월 스님은 “교육불사에 뜻을 둔 중단 인력의 인사가 많이

있다”며 “이들을 동방불교대학 이사로 초빙해 관심과 후원을 이끌어 냈고 동시에 중단의 협조하여 양질의 교육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중단이 지난해부터 인재양성의 한 방편으로 주력해온 핵심 사업인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성공여부는 동방불교대학의 학사운영이 얼마나 잘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책임이 막중한 만큼 학사관리와 교육과정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펴 려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유응오 주간불교 기자

한국일보신문에 당선



주간 불교신문 유응오 기자(사진)가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작품 ‘요오’로 당선됐다.

‘요오’는 춤에 모든 것을 건 비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격렬한 춤속에 숨어있는 원심력과 구심력을 불교적인 사고로 풀어낸 작품이다.

이순원 이승우 성석재 소설가와 서영채 문학평론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은 “‘요오’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하이틴 아웃사이더들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뽐내는 에너제틱한 모습이 돋보였다”며 “4명의 심사위원들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요오’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은 신인다운 패기와 서사의 에너지가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심사평을 발표했다.

유응오 기자는 “설령 그 끝이 비망일지라도 나는 고혹적인 손짓을 하는 문학의 길을 갈 것이다. ‘요오’처럼 나를 끌어들이고 내밀었던 수많은 인연에게 감사드린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김지연 기자

혜철 스님 법무부장관 표창



육천 대상사 주지 혜철 스님(사진)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26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혜철 스님은 그동안 청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교도소 위문공연과 상담 등으로 수용자 교화에 힘써왔으며, 최근에는 전국 수용자 호편지시기행사를 개최해 수용자들의 가족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2007년을 뛰는 불자

우승택

- 삼성증권 호텔신라 지점장

“경제 바로 알기 위해

꾸준히 수행해야죠”



증권가에도 스타가 있다. 우승택 삼성증권 Fn Honors 호텔신라지점장(49·사진)도 재테크 스타 중 한명이다. 요즘은 MBC TV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 ‘경제야 놀자’ 코너에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런 그가 불교에 심취한 불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심상사성(心象事成),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금강경> 해설서를 펴낸 정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불교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사람들은 가난한게 무슨 죄냐고 하지만, 요즘은 가난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 ‘가난은 죄’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우승택 지점장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을 키울 것을 주문한다.

“제가 펴낸 <금강경> 책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 중에 일이 잘 안풀린다고 하소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세상이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기는 속세이기 때문에 속세에 맞는 교의해석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지요.”

고객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PBI Private Bank인 우 지점장도 돈과 불교 사이에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고 20년이 걸렸다고 고백한다. 요즘은 그토록 의지했던 교법과 수행이 자신을 지탱하게 한 것임을 깨닫는다. 지난해 불교인재개발원이 창립될 때 주축 역할을 맡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인연으로 우 지점장은 불교인재개발원이 수여하는 첫 번째 불교인재상을 수상했다.

TV ‘경제야 놀자’로 시청자와 교감

세상 바로 보는 눈 키우기가 ‘화두’

불교와 경제에 대해 묻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세속공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낸다. 부처님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늘 개여 있었기 때문에 세간 해(世間解, 부처님을 이르는 열가지 명칭 가운데 하나)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경제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수행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지 않는 한 일명 ‘고수’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그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송광사 대구포교원 반야선원 개원



송광사 대구포교원 반야선원(원주지 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등 100여명이 참석한 법회는 경과보고 및 주지스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법회에서 영조 스님은 “나를 버리고 중생을 위해 불국정토를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워보자”고 당부했다.

티벳고승 쉑추 캔술 큰스님의 「보리도 득론」 법문 및 대승 보살계 수계동참 안내

불법의 대의는 번뇌를 다해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승의 법은 부처가 되고자 발보리심 하여 자비행을 하는 수행법입니다. 보리도 득론은 이러한 대승의 수행법을 일러주는 논전입니다. 6일간 보리도 득론을 설하시고 대승보살계는 마지막 회향일날 티벳 큰스님께서 설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하셔서 수행의 기초를 다져서 중생을 이익케 하는 법문에 들어가시기를 바란합니다.

- 일 시: 양력 2007년 1월 13일(토) 오전10시 입제, 1월 14일(일) 오전10시 1월 15일(월) ~ 1월 19일(금) 오후 6시30분 (수계식)
장 소: 여수시 노인 복지관(학동)
동참방법: 모든 가족들이 보살계를 받으시길 바라며 금반 법회비용은 반야인 보살님이 실행시주를 하였으므로 보살계 법회에 공양드리고 싶은 분은 자유롭게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 법회 동참자와 수계자는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전계사 및 법사: 쉑추캔술 린포체

대한불교조계종 마래산 석천사 주지 진옥 합장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16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에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제16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1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2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3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4 사찰·포교원 등특수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and Content. Categories include: 모집과정, 교육학반, 입학자격, 제출서류, 교육기간, 교육장소.

- ◆ 원서 교부 및 접수: 200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 부산교육원 (우편·팩스 접수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